

1992

5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출애굽기 13장 1절~23장 9절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출애굽기 서론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3400여년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종살이부터 소개되고 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짐음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서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되돌아 갔다. 이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주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생활이 드디어 시작되었다. 얼마되지 않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그들에게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40년의 나그네 길에서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들은 옛생활을 잊지 못하여 광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했다. 이러한 무질서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10가지 계명을 주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지표가 되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광야생활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변화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음 보여주고 있다.

5월의 기도제목

1.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목양
2.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강건함과 사역
3. 부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헌신과 능력충만
4. 전교회의 뜨거운 기도운동
5. 전교구의 부흥과 배가성장
6. 교회학교의 질적 양적 성장
7. 총현의 온 가정에 성령충만

1992

5

The Family Alter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출애굽기 13장 1절~23장 9절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 552-8200

1 (금)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찬송 218, 성경 출 13:1-10

「여호와와 올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13:9)

우리에게는 기념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념해야 할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해야 할 날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의 날 곧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땅에서 살다가 잃어버린 고향을 향하여 애굽을 나오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기억하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민족적으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구원의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받아 결단한 순간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 *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리라”(요14:15)하셨고, 요한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5:3)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느점으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불순종의 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계명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새계명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13:13)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과 모든 생축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돌연 본문 속에서 나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나귀는 매우 어리석은 동물중에 하나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성의 능력을 뽐내며 지성으로 달성한 결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고 해도 이들은 영성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같으니라”(요11:12)라고 했습니다. 나귀의 특징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요. 지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일지라도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 • 스가랴 선지자는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 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슥 9:9)로 했습니다. 예수의 이끌림을 받은 나귀는 성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3 (주일)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송 313, 성경 출 13:17-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13:22)

오늘 본문에는 축복받은 백성들의 대행진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받으면서 광야길을 행진해 갔습니다. 이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낮에는 구름기둥처럼, 밤에는 불기둥처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하시면서 그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구름기둥 속의 불은 떨기나무숲의 불로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시내산의 두꺼운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로서 나타나셨고, 오늘의 본문처럼 이스라엘의 앞길을 밝게 비춰주시며 모든 어려움에서 보호하시는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파멸로,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소멸의 불로 그들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 • 오늘날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귀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줄 알게 하리라」(14:4)

섬김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백성들은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앉기 원합니다. 섬김을 받기에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모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애굽의 바로왕은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위하여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서 마음속에 섬김에서 놓아보낸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홍해 해변으로 쫓아 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 오더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 •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올지 모르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려고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아야 할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섬김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14:14)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었습니다. 히브리서11장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라고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고 한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타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고후4:18). 세상 사람들에게는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같이 하여 참았으며”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믿었습니다.

- * *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기에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기 전에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14:15, 16)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민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게 하는”(출14:22) 참으로 복된 결과를 산출했습니다. 조금전까지만 해도 바다는 그들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바다는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의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이후부터는 죽음은 하늘나라로 가는 소망과 기쁨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복음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영적인 의미의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누구나 절망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그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됩니다.

- • 오늘날 성도들도 사방으로 우겨싸여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의 홍해가 가로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길을 갈라 열어주실 것입니다(사43:2).

7 (목)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 487, 성경 출 14:21-25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14:25)

하나님께서 밤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이 더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오늘 말씀을 보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가르시고 땅을 말리셨습니다. 이같이 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들은 마음이 강박하여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 백성들은 생명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강박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따라서 온 애굽 군대는 멸망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온 밤을 통하여 일어났고 새벽이 될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 * *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밤새도록 역사하시며 새벽에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 7)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 맡기며 간구합니다.

기도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14:31)

유리컵에 물이 반쯤 들어 있는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물이 반이나 남았구나”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반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른 경우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재앙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군대가 물에 수장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보았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심판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구원자로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섬기게 하기 위함ियो, 그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 * *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큰일에도 보이셨지만 모세에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우리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15: 2)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의 노래는 오늘 속함을 받은 백성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찬양의 노래를 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애굽군대의 쫓아오는 위급함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한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속 받음을 의심하는 자들도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구속의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기쁨의 찬양이 있는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지요. 실제적인 구속이 없다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보혈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와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15:18)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들의 심령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거룩한 힘과 영적인 노래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안에서 기뻐하는 분량만큼 우리들의 행함에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도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늘의 예비된 처소까지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힘으로 예비된 처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 * * 하늘나라는 주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 처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곳이므로 의롭지 못한 자는 한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원한 처소를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광야생활의 첫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이세상에서 날마다 승리의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15:26)

광야란 나그네의 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지나가는 길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세상이 바로 그와같은 곳입니다. 한정된 시간의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머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봅니다”(히11:10).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전만해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를 바라보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찬양의 입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도 한 입으로 찬양과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의 하나님 안에서 항상 살아야 합니다.

- * * 우리는 환경에 대하여, 날씨에 대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하여 불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날의 삶에서 나타나는 시련에 대한 불평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엡1:11)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시야가 가려짐으로 불평을 했던 것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야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16:4)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두달 십오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적을 통하여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죄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에서는 원망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3절에 보면 먹을 것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고기와 떡을 먹었던 때를 추억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종살이 할지라도 그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변덕스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숨과 자유를 얻고나니 배부를 때가 좋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어쩔수 없는 죄인임을 말해줍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에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참으시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 * *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서 죄악 속에서 죄를 먹고 마시는 때가 좋았다는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야 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13 (수)하나님의 은혜

찬송 410, 성경 출 16:13-20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16:16)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 200만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들이 하루 한 오멜씩 거둔다면 그 양이 무려 4천5백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열대의 열차가 각각 삼십개의 화물칸을 달고 그 화물칸마다 15톤씩 실어와야만 하는 많은 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광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받는 질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뽕일에 한 오멜씩 거두어 그날에 남기지 말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들은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벌레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 * * 만나는 하나님의 일용할 선물입니다. 사람들의 욕심대로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가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의 만나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영혼에 배고픔이 옵니다. 반면에 육신의 욕심을 채우려 할 때는 썩은 양식이 되고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살피며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제 칠일에 안식하니라」(16 : 30)

본문은 안식일에 평일과 다른 일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에는 전날에 거둔 만나에 별레도 썩는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다른 날과 구별해서 보내야 합니다. 즉 전날에 모든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다가 헛수고를 했습니다.

- •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거룩한 날이라 제정한 안식일에 불신앙적인 삶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안식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식구들이 안식일에 주신 특별한 만나를 맛보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일용할 만나가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더욱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거룩한 안식일을 예수 안에서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복된 날을 지키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5 (금) 40년간의 축복

찬송 489, 성경 출 16 : 31 - 36

「사십년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16 : 35)

하늘의 양식이 맨처음 떨어진 곳은 '신평야'였습니다 (16:1).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일한 은혜의 선물인 만나를 거져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은 그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엡2:8, 9).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거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증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32, 33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양식이 40년 동안이나 내렸고,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간수했습니다.

- * *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나 불신앙 자에게나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충만한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릎을 꿇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믿음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일평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북한선교에 더욱 큰 열매 맺게 하소서.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었요」(17:7)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서면서 두번째 원망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원망은 '마라'에서 쓴물로 인해 원망했고 그리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무도한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그 백성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또한 잘보여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번 불평, 원망하기 시작한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하며 심하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다툼이 심했던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고하기를 “이 백성이 얼마있지 않으면 내게 돌질 하겠나이다”라고 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마실 물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 * 오늘날 우리들도 문제가 생길 때에 남을 향해 원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며 또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조급하게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우리교회가 온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17 (주일)기도와 전쟁

찬송 385, 성경 출 17:8-16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 더니」(17: 11)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 이방 족속과 싸운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먼저 도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말렉을 도말하시고 대대로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승리로 인도하는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나가도록 명하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전쟁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영적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승리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를 좌우에서 협력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 *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강력한 도전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도에 더욱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승리의 기쁨을 주옵소서. 계속되는 청지기 훈련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 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18:12)

본문은 모세가 애굽으로 출애굽의 사명을 받고 내려갈 때에 헤어졌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와서 상봉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반갑게 영접하고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드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 나라인 미디안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전장에 나오는 아말렉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거스려 싸우는 이방인의 모형이라면 본장에서 등장하는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모든 일을 듣고 기쁨으로 인정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함께 잔치에 참여한 이방인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이방인 중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두 들음에서 나온 것인데 이드로 역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사건, 홍해사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 * *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을 전함으로 이방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불신자들에게 전하므로 저들이 예수 믿고 주를 찬양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힘써 증거합시다.

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소서. 안석렬 선교사님(수리남)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역이 확장되게 하소서.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18:24)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는 열심과 근면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고 또 그들을 재판하는 직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성실하고 근면한 모세에게 비능률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모세 혼자서 수 많은 사람들을 다 가르칠 수 없고 또 재판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백성들 중에 믿음과 진실과 재덕이 겸비된 자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워 간단하고 쉬운 것을 재판하고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과중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분담하므로 백성들을 질서있게 만들고 일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드려 이스라엘 백성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일만 하다가 세월을 다 보냈을 것이고 결국 기력이 쇠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고집스런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남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모세의 현명하고 슬기로운 태도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19:6)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을 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출애굽한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주된 내용도 순종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강한 은총의 표시인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엄숙한 말씀을 받고 산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 * 하나님께서 순종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은 오늘날에도 믿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성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격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며 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벧전2:9, 10).

21 (목)하나님의 강림을 준비하라

찬송 507, 성경 출 19:7-15

「예비하여 제 삼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 삼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임이니」(19:11)

하나님은 당신이 시내산 위에 가시적으로 강림할 것을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틀 동안의 여유를 주면서 이 장엄한 강림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여 성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일을 끊어 버리고 오로지 기도와 명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경건함으로, 헌신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번거로운 생각을 정돈하고, 불순한 감정을 제거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모든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두 가지 실례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옷을 빨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에게도 가까이 하지 말라” 것입니다. 옷을 빨다는 것은 의복을 중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금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는 표시로 합법적인 즐거움 조차도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 * 높은 사람을 만날 때 깨끗한 의복을 입습니다. 과연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께 다짐하지만 과연 얼마나 사사로운 쾌락을 끊으면 성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 깨끗한 마음과 영혼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성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4:6)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제 삼일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뽕뽕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16절). 하나님의 장엄한 모습은 아무도 가까이 올라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 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24절). 예외적으로 오직 모세와 아론만 올라가도록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림을 단지 구경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경계선을 범하기까지 호기심을 갖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보다는, 우리의 호기심이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이상을 알려고 욕심부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과실이 어디서 왔습니까? 금지된 지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것 이상을 추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한번도 보지 못한 것이나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함부로 불경하게 뛰어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 * “백성이 돌과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2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금지하고 경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경함으로 자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기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박행렬, 장부용 선교사님들을 (서사모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23 (토) 십계명을 주신 여호와

찬송 209, 성경 출 20:1-11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20:2)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속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할 구체적인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십계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익하여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에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곧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것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폐기론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삶의 지침으로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며 은혜로운 것입니다.

- * *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혹시 어떤 면에서 잘못되었는가 살펴봅시다. 십계명을 통하여 구원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게 하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20:12)

흔히 십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게 대한 의무, 둘로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1-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말한다면, 5-10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명령합니다. 여기에 짝을 이루어서 5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의 두 기둥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사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는 경제적인 육신적인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마음만의 공경은 아닙니다. 입술만의 공경은 공경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모 공경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위의 권세를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들의 지시나 충고, 그분들의 의견에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윗어른이나 스승, 선배들의 옳은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 * 오늘날과 같이 무질서하고 혼란한 세대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세대! 과연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 윗분들의 진정한 권위가 회복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25 (월) 두려움과 함께 준 율법

찬송 399, 성경 출 20:18-26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20:25)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특별히 두려움 속에서 주셨습니다. “우뢰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이것들은 다 두려움을 연상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했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이 이 율법을 어겼을 때 당하게 될 모든 심판과 두려움을 미리 나타내는 징조입니다. 율법을 어기면 죽음과 절망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은 두렵습니다. 공포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생각되질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율법이 양심 속에 넣어둔 양심의 가책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양심 속에 넣어둔 양심의 가책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양심의 가책, 그 가책을 통해 영혼이 복음을 받아 들이게 합니다. 만약 율법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때닫지 못하면 인간의 비참함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율법의 두려움이 없다면 십자가가 주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 * * 그렇습니다. 율법의 어두운 모습이나 두려움은 율법 그 자체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복음이 있기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율법은 복음의 빛을 더 밝게 드러내기 위해 잠시 주어진 일시적인 어두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義)를 꺾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율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진리를 더욱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말씀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받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송곳으로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21:6)

모세의 율법은 크게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안에 나타나고 있고, 시민법은 출애굽기 21-23장에, 의식법은 레위기에 각각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의 집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는 자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였습니다. 종은 6년간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재판장 앞에서 종의 귀를 뚫는 것이 당시의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을 존경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입니다. 누가 보든지 흉하지만 주인 앞에서 주인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 ★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귀를 뚫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이와같이 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손과 발에 뚫린 구멍을 볼때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27 (수) 생명의 존엄에 관한 규제

찬송 522, 성경 출 21 : 12-17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21 : 12)

본문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쳐죽인 죄, 부모를 치거나 저주한 죄, 사람을 유괴한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에 대하여 경시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피할 곳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을 죽인자와 어린이를 유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구타하거나 저주하는 사람은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부모에 대한 불효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제5계명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부모공경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 •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하여 무책임한 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녀 된 모든 자들은 부모를 경멸하는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를 온전히 곤경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첩경입니다.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엡6:1)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삼십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21 : 32)

본문에서는 타인에 대해 피해를 입힌 자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노예를 구타하여 다치게 한다면 주인에게 치료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손실까지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노예를 구타하여 이가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불구가 된다면 그 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종을 바르게 하기 위한 매질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을 소가 들이받아서 죽였을 때에는 소 주인은 그 종의 주인에게 은전 30냥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 * * 은전 30냥이란 종의 가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전 30냥에 팔렸습니다. 주님의 몸값이 종의 가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죽음에서 까지 보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은전 30냥에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녀로써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9 (금)재물과 신용에 관한 법

찬송 238, 성경 출 22:1-15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 할지니라」(22:5)

본문은 수고하지 않고 다른이들의 재물을 취하는 것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물질이 모두 도적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같이 말한 이유는 본문의 배상의 원리를 따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이의 재물을 취하였던지 혹 부주위로 다른이의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지라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러한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진정한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 * *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서 서로 과실을 덮어주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내가 호리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야 할 것과 있었다면 반드시 보상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22 : 29)

본문은 우상숭배와 행음과 무당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 것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과부와 고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첫 수확과 첫 새끼를 더디게 드리지 말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사람의 처음 난 말아들은 하나님께 받치라”는 말씀과 23장 19절에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드리라”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아까와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내는 제물을 기뻐하십니다.

- * *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이 자신의 소유인줄 알다가 밤에 그의 생명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때가 지난 다음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며 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됩시다.

31 (주일)송사와 공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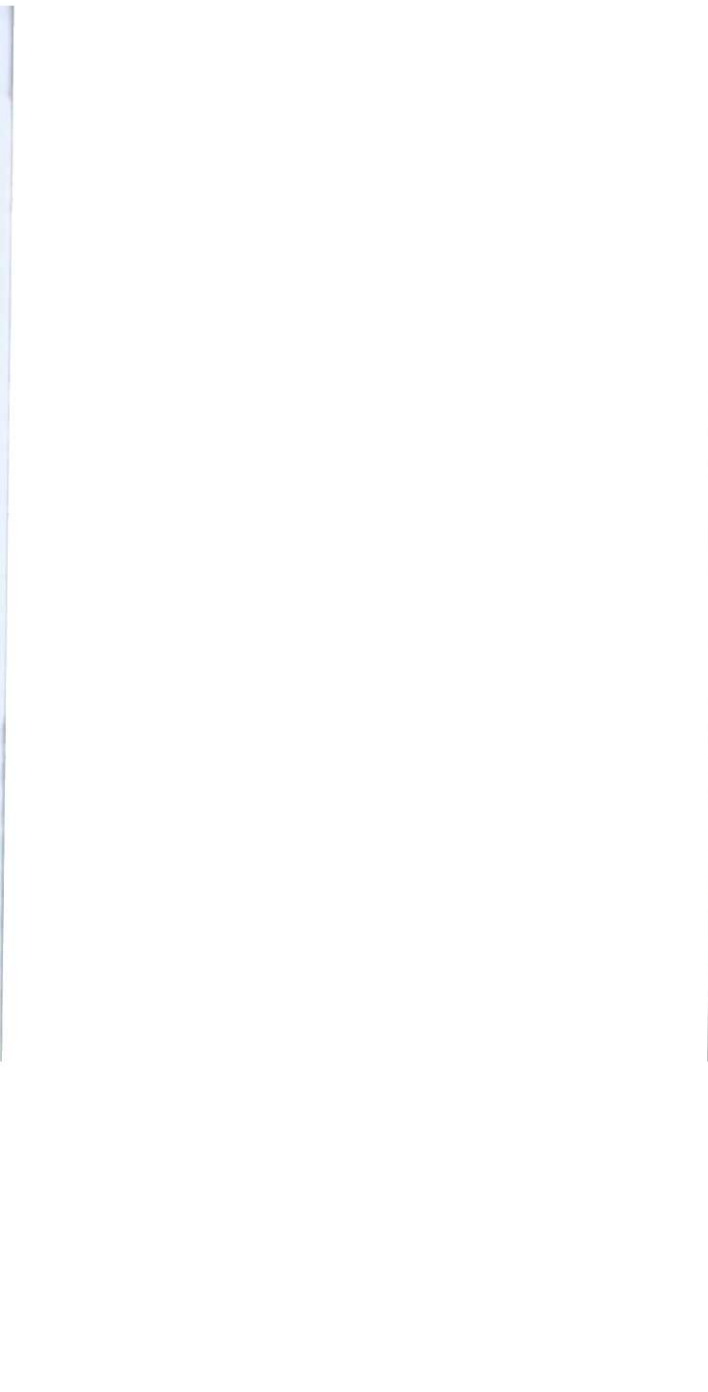
찬송 346, 성경 출 23:1-9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23:6)

본문은 주로 법정에서 소송 사건이 심의 될 때 충분히 발생 할 소지가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죄악들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평한 재판을 실시해야 하며 결코 권력이나 다수의 압력에 의해 송사가 잘못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부당하게 처리하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수의 압력과 위협으로 공평하게 송사를 처리하지 못한 빌라도에 의해 죄없이 사형선고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공의를 굽게 하는 법정의 부조리라는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법정의 타락은 곧 사회·정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나 재판관은 사람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최종 심판을 내리실 하나님을 두려워 하면서 증언을 해야하며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 *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모른 체 하며 살고 있고 다수의 시선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증언을 하지 않고 편협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분명히 고쳐야 하며 물질이나 지식의 많고 적음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흐려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기도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소서. 이달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다음 달에도 함께 하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 1) 찬 송 ... 다같이
- 2) 성경봉독 ...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